

공존의 길, 대화로부터 시작된다

박미란, 위수한

성적고정관념, 깎아먹는 자기정체성

“계집애도 아니고 남자가 그것도 못해?”

“아ㅋㅋ 존X 게이같아”

“남자면 그 정도는 마셔야지”

이런 발언들을 들을 때마다 이따금 기분이 불편해지곤 했다. 그러면서 분위기가 어색해지지 않으려고 웃어넘긴 적이 대다수다. 불편함을 느끼는 나를 보며, ‘내가 너무 여성적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스스로를 검열하며 전통적인 남성상에 맞추려고 노력해보았던 경험도 있다. 무거운 물건들을 들며 허세를 부리기도 하고, 좀 더 남성다움을 갖추려 웨이트 트레이닝도 시도해봤다. 하지만 점점 나의 정체성을 잃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회의감에 빠지곤 했다.

남성과 여성을 가리지 않고 성역할 고정관념에 맞추기 위한 무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큰 가슴과 골반, 군살 없이 마른 몸을 위해 수백만원을 들여가며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며 바디프로필을 찍어 전시하는 풍속은 웃지 못할 일이다. 뿐만 아니라 매년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로 압구정 성형외과가 인산인해를 이루는 모습은 하루이틀일이 아니다. 하나같이 마른 몸, 넓은 어깨, 큰 키의 사람들로 가득 차있는 인스타그램 피드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우리 사회의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사람들의 다양한 정체성이 무시되고 있다. 남성다움을 기준으로 남성은 서열화되며 평가된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동시에 ‘여자는 울 수 있어’, ‘여자는 조신해야해’, ‘여자는 속마음을 드러내면 안돼’와 같은 여성다움도 강화된다. 여성성을 기준으로 여성들도 서열화되며 기준에 맞지 않는 여성들은 소외된다. 이렇게 모두에게 강요된 성역할은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는 ‘차별’로 이어지기도 한다.

공기처럼 만연한 강간문화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처럼 우리 사회에서 남성의 스토킹은 그저 순애보같은 사랑으로 치부되곤 한다. 하지만 이는 엄연히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린덴 그로스에 따르면 “스토킹의 목적은 오로지 상대방을 괴롭히고 굴복시키는 데에 있고 결국 그 표적을 파괴하는 극단적 행동을 취한다”고 설명한다. 즉 스토킹은 또 다른 강간의 형태인 것이다.

최근 신당역 살인사건도 이를 매우 잘 보여준다. 입사 동기인 피해자에게 불법촬영과 스토킹을 행해온 전주환은 끝내 피해자를 살해한다. 전주환은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에게 협박하고 재판 중에도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했다. 이러한 사건은 극악무도한 가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만연한 강간문화의 재현이다. 김인선 부산대 교수는 “여성을 향한 잔혹한 범죄는 한 명의 일탈이 아니라 사회의 만연한 ‘강간 문화’와 이를 알고도 하찮게 여기는 권력의 방조, 태만 속에서 확산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젠더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권 교육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만연한 강간문화를 타파해야한다.

성평등은 거저 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혐오표현과 강간문화가 만연한 이유는 한국은 남성 중심적 문화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가령 “남자는 울면 안돼”라는 말도 남성주의적이다. 사실 대부분의 남자들은 많이 울고 있으며, 울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똥똥한 여자도 사랑받을 수 있으며, 키가 작은 남자도 누군가의 남편이다.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성역할 고정관념을 일상 속에서 학습해왔다. 내조를 잘하는 수동적인 여성과 강인하고 무던 남성, 그 속에서 행해지는 수도 없는 폭력들. 하지만 사실 폭력은 젠더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누군가는 폭력이 본능의 반문명적 표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폭력이 약자를 향한다는 점에서 그 주장은 틀렸다. 대개 폭력의 원인은 폭력을 수월하게 하는 구조에 있기에 우리는 그 구조에 대해 말해야 한다.

열 번이나 찍을 힘이 있어서 부럽다. 꽃도 꺾지 않는 사회에서 밑동만 남은 나무가 무슨 의미일까? 남성의 폭력에 관대하고 부부나 연인관계에서 남성의 여성에 대한 지배가 당연시되는 사회에서는 데이트폭력이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 사회가 디지털 성범죄의 범죄성과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예방교육, 규제, 피해 회복을 소홀히 할 경우 여성의 권리는 제대로 보장될 수 없다. 사람들의 양심이 인권을 자연스럽게 보장시켜줄 것이라는 생각은 안일한 태도다. 인권은 지독한 피의 투쟁의 결과인 것이다. 여성 참정권 운동, 프랑스 인권 혁명, 광주 민주화 운동을 보아라. 모든 인권은 피와 땀을 통해 보장될 수 있었다. 다시말해, 우리는 성평등을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목소리 내야한다.

아픔이 길이 되려면

성차별은 초국가적이고 고질적인 사회 문제다. 하지만 어느 나라도 그렇다 할 뚜렷한 해결책을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무한경쟁의 우리 사회에서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권리에 대해 제대로 성찰할 수 없었다. 특히나 정치권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젠더갈등을 부추기곤 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일각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는 차별금지법이 아픔이 길이 되려는 시도라고 본다. 하지만 차별에 대한 시정이 강제성을 가졌을 때 반대 세력의 반발이 극심해질 수 있다. 차별금지법은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할 수 있으며,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 무엇보다 차별금지법은 기독교나 보수층의 극심한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는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가 이겨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젠더 담론은 종종 남자와 여자의 권리를 대립과 갈등으로 묘사된다. 여성이나 남성의 인권이 상충한다는 프레임은 본질을 흐린다. 여성 인권의 보장은 남성들의 추락으로 귀결되지 않는다. 우리의 아픔이 유의미한 길이 위해서는 먼저 차별받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 대한 공감이 이뤄져야 한다. 차별금지법을 둘러싸고 서로가 반대 진영에 대해 악마화하는 작금의 상황에서 벗어나 마음으로 대화하며 소통해야한다. 그래야 차별금지법이 제대로 된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사라지기 시작할 수 있다. 공존의 길, 아픔이 길이 되는 것이다.